SDI 정책리포트

2011년 1/4분기 서울지역 소비자 및 기업 체감경기 전망

2011. 3. 21 제85호

박희석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목 차 〉

요약
Ⅰ. 최근의 서울경제 여건
Ⅱ. 서울의 1/4분기 소비자 체감경기 전망
Ⅲ. 서울의 1/4분기 기업 체감경기 전망
Ⅳ. 종합분석 및 시사점
부록 : 2011년 1/4분기 주요 조사 결과

요 약

지속적인 내수 증가로 서울경제는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성장폭은 다소 둔화

서울의 제조업 경기를 반영하는 산업생산지수는 2011년 1월 전년동월대비 1.0% 성장하여 최근 4개월 연속 플러스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성장폭은 계속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내수로 대표되는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도 2011년 1월 전년동월대비 25.5%로 큰 폭의 증가를 보였으며 지난 1년간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본격적인 내수 회복을 기대하기에는 다소 무리이다. 고용 측면에서 2011년 1월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2.7% 증가하여 지난 9개월간의 평균 증가율 2.5%를 상회하고 있어 고용사정이 서서히 개선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기업의 전반적인 실적개선이 예상되어 향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 상승

서울 시민의 전반적인 체감경기를 대표하는 「소비자태도지수」는 2011년 1/4분기 92.2로 지난 4개 분기 평균보다 하회하고 있어 현재의 경기 상승에 대한 기대가 하락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 주된 원인으로는 이상기온 및 구제역으로 인한 농축산물 가격 상승과 중동사태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등에 기인하여 체감경기 심리가 약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2011년 1/4분기 「미래경기판단지수」는 101.5를 기록하고 있어 향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유지되고 있다. 다만 2011년 1/4분기 「물가예상지수」가 전분기보다 상승한 154.5를 나타내고 있어 물가불안에 대한 우려가 대두된다. 반면, 서울소재 기업의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업황실적지수」는 2011년 1/4분기 94.5로 전분기보다 3.7p 상승하여 기업의 경영여건이 개선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업황전망지수」도 97.7로 8.0p 상승하여 향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잠재성장력 제고 필요

내수 증가를 통한 서울경제의 지속적인 경기회복세를 위해서는 물가상승 압력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서울특별시 물가정보망' 기능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전국 대비 서울의 고용여건은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업종별로 도소매업, 음식·숙박업의 고용이 부진하며, 청년층의 고용증가율의 등락이 심해 '서울형 사회적기업 지원', '청년창업 활성화 추진' 등의 정책강화로 일자리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최근 서울의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어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신성장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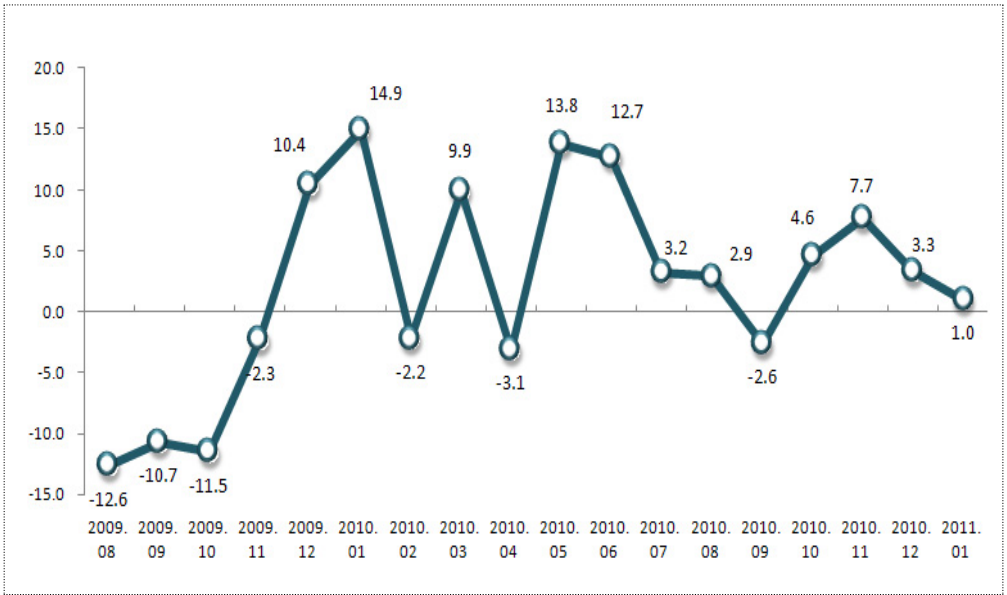
Ⅰ. 최근의 서울경제 여건

내수 부문의 지속적인 증가세로 서울의 경기회복세 지속

□ 서울의 산업생산은 플러스 성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성장탄력은 다소 약화

- 서울의 제조업 경기를 대표하는 산업생산지수는 2011년 1월 전년동기대비 1.0% 성장하여 2010년 9월 이후 최근 4개월 연속 플러스 성장세를 유지
  - · 그러나 2010년 11월 7.7%를 정점으로 회복국면을 보이던 서울의 산업생산지수 증가율은 이후 계속 감소
  - · 최근 산업생산의 점진적인 회복세는 자본재 및 소비재 생산의 증가에 기인하였으나 2011년 1월 소비재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7% 상승
- 2011년 1월 전국의 산업생산 증가율이 13.7%이고 최근 4개월간 평균 12.2%인 점을 고려하면 서울의 성장탄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시사

(전년동월비, %)



자료 : 통계청

[그림 1] 서울의 산업생산지수 추이

□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큰 폭의 증가로 2010년 3월 이후 지속적인 성장세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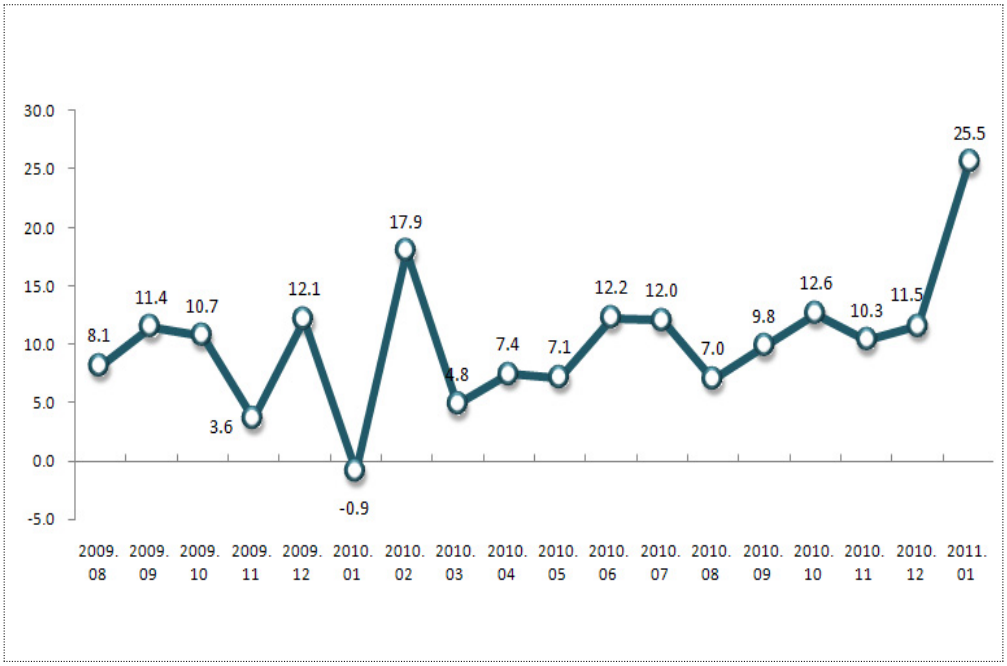
- 내수로 대표되는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2011년 1월 전년동월대비 25.5%로 큰 폭의 증가 시현

  · 부문별로 백화점은 23.2%, 대형마트는 29.0% 증가하여 대형마트 위주로 내수 증가

- 2011년 1월 대형소매점 판매액 지수의 가파른 증가는 이상기온과 구제역으로 인한 물가상승으로 판매금액 증가와 2010년 1월 전년동월대비 -0.9%의 마이너스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에 기인

  · 내수로 대표되는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가 지난 1년간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어 지속적인 내수 회복 기조 유지

(전년동월비, %)



자료 : 통계청

[그림 2]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 서울의 취업자수와 청년층 취업자수는 증가세를 유지하여 고용사정이 점진적으로 회복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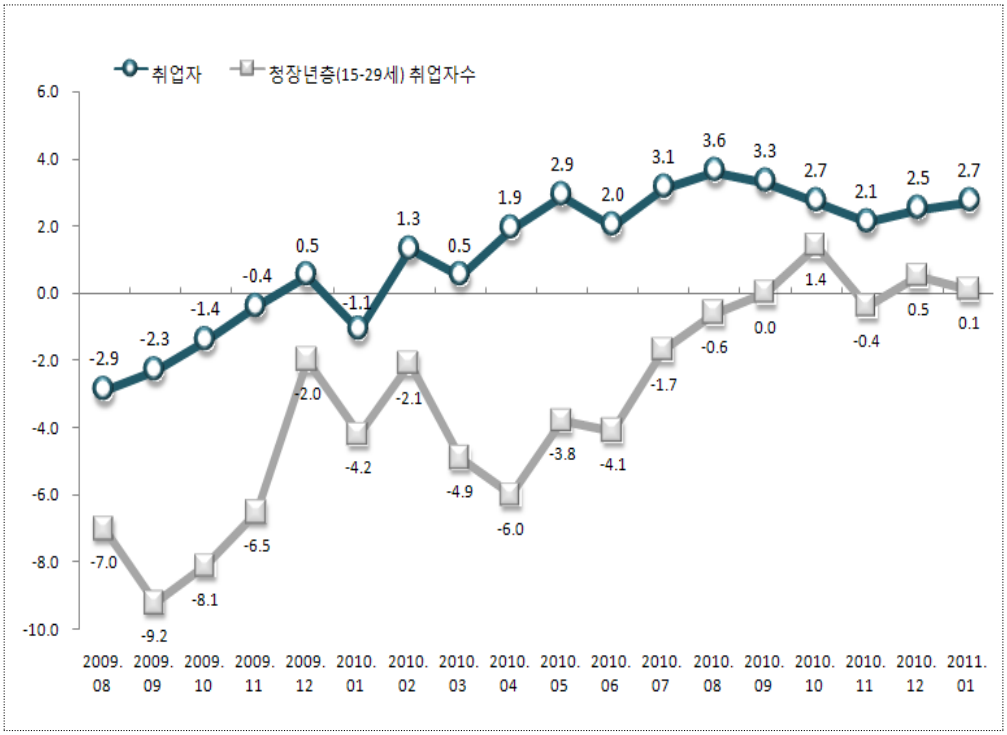
- 2011년 1월 서울의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2.7% 증가하여 2010년 이후 꾸준한 증가 추세

  · 서울의 취업자수 증가율은 2010년 5월 이후 9개월간 평균 2.5%를 유지하고 있어 고용사정이 서서히 개선되고 있음을 시사

- 서울의 청년층(15~29세)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0.1% 증가하였으나 최근 3개월간 평균증가율은 0.07%로 미미한 증가

  · 그러나 서울의 청장년층 취업자수 증가율은 2010년 8월 이후 전국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여 전국에 비해 고용여건 양호

(전년동월비, %)



자료 :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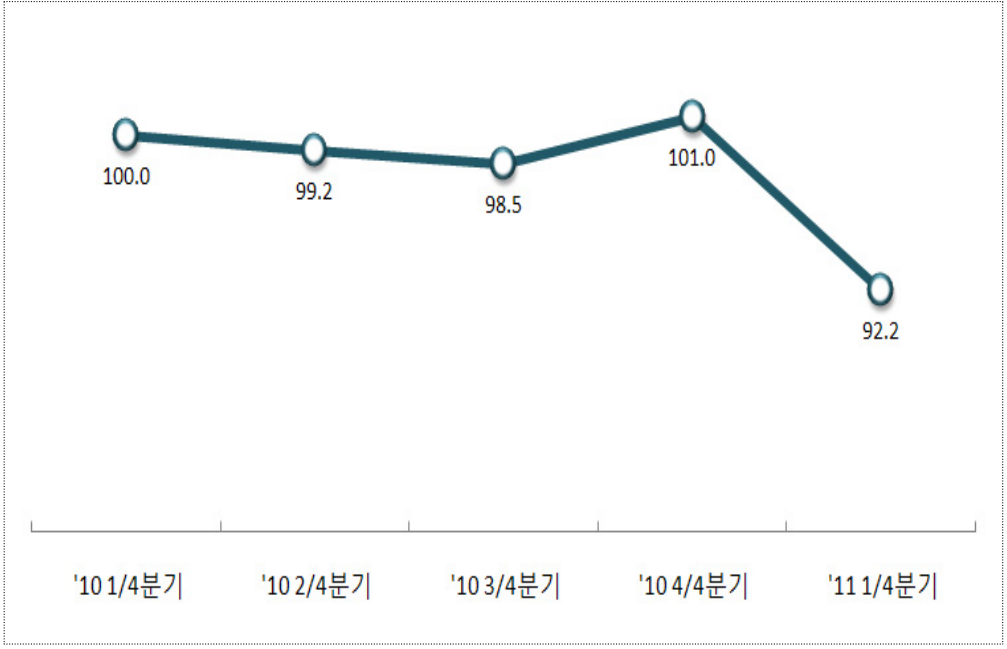
[그림 3] 서울의 취업자수

Ⅱ. 서울의 1/4분기 소비자 체감경기 전망

서울 시민의 체감경기 하락, 미래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약화

□ 2011년 1/4분기 서울의 「소비자태도지수」는 92.2로 체감경기가 하락하고 있음을 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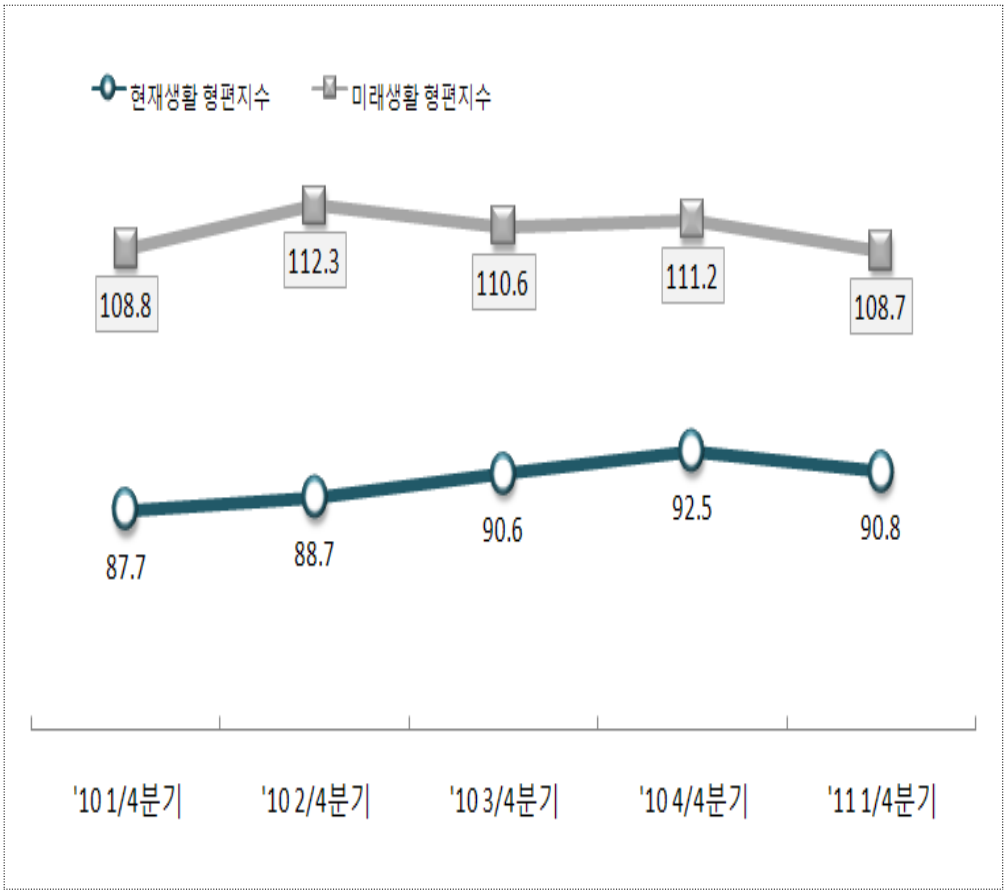
- 서울 시민의 전반적인 체감경기를 대표하는 「소비자태도지수」는 조사를 시작한 2008년 4/4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
  - · 2010년「소비자태도지수」는 평균 99.7을 기록하여 기준치(100)에 근접하였으나 2011년 1/4분기의 경우 92.2로 지난 4분기 평균보다 하회
  - · 이상기온 및 구제역으로 인한 농축산물 가격 상승과 국제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경기 상승에 대한 기대감 감소에 기인



[그림 4] 서울의 소비자태도지수

□ 서울의 「현재생활형편지수」와 「미래생활형편지수」는 전분기 대비 소폭 하락

- 2011년 1/4분기 「현재생활형편지수」는 전분기 대비 1.7p 하락한 90.8을 나타내고 있고「미래생활형편지수」는 2.5p 하락한 108.7을 기록
  - 「현재생활형편지수」는 2008년 4/4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기준치(100)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
  - 「미래생활형편지수」는 기준치(100)를 상회하고 있으나 전분기에 비해 다소 하락하여 향후 생활형편 개선에 대한 기대감 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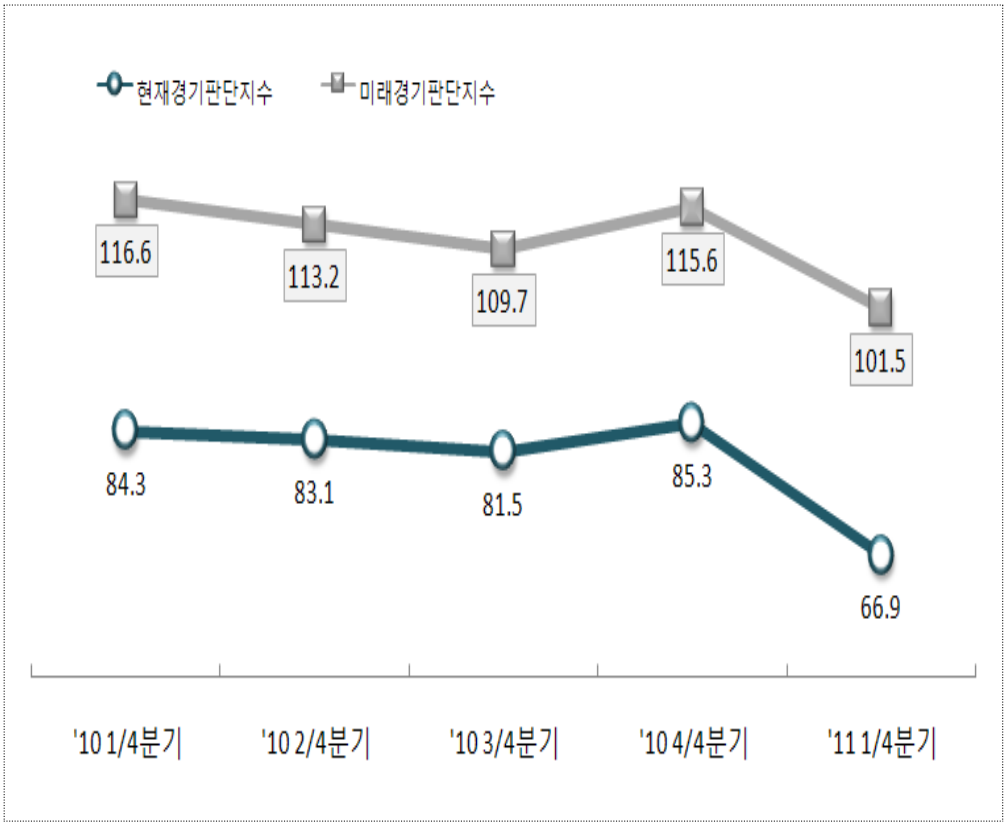
[그림 5] 서울의 생활형편지수

□ 서울의 「현재경기판단지수」와 「미래경기판단지수」 모두 10p 이상 하락하여 1년 후 경기에 대한 소비자 기대심리가 다소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

- 2011년 1/4분기 「현재경기판단지수」는 2010년 4/4분기 대비 18.4p 하락한 66.9,「미래경기판단지수」도 전분기 대비 14.1p 하락한 101.5를 기록

  · 「현재경기판단지수」는 최근 4분기 동안 평균(83.0)을 하회하는 66.9를 기록하여 서울의 체감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하락했음을 시사

  · 「미래경기판단지수」는 기준치(100)에 근접한 101.5를 기록하였으나 2010년 1/4분기 이후 최저치를 나타내고 있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



[그림 6] 서울의 경기판단지수

□ 서울의 경제여건에 큰 개선이 없는 가운데 물가불안 심리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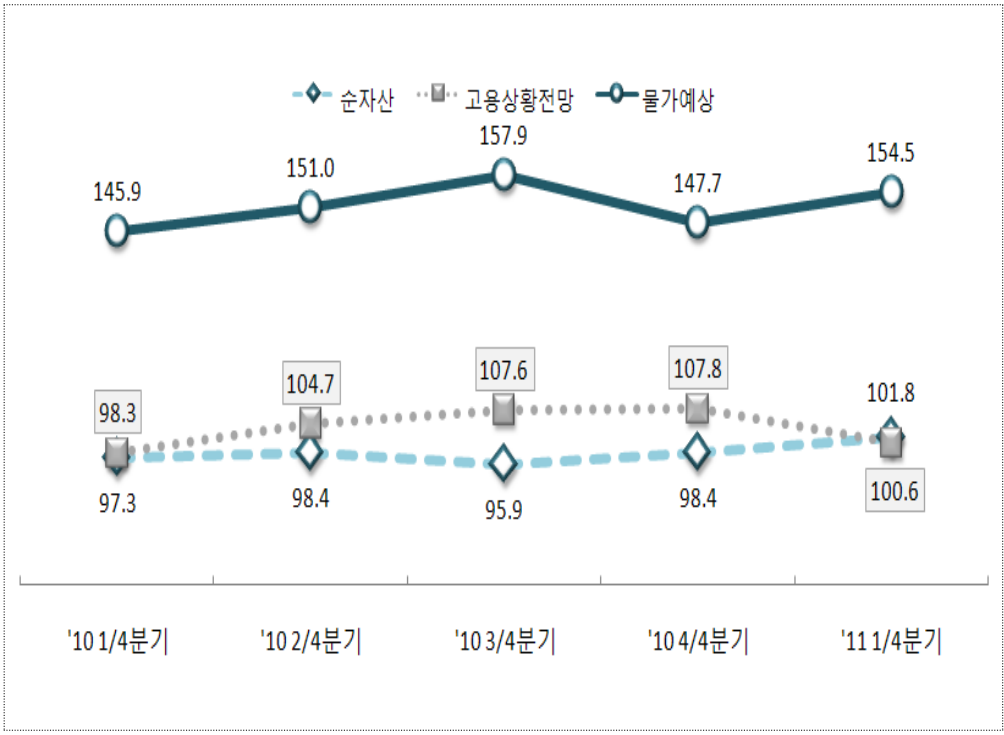
- 2011년 1/4분기 「물가예상지수」는 2010년 4/4분기 대비 6.8p 상승한 154.5로 물가에 대한 불안심리 반영

  · 2010년 4/4분기에 다소 호전되던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가 반분기만에 다시 대두되어 이에 대한 대책 필요

- 「고용상황전망지수」는 2010년 4/4분기대비 7.2p 감소한 100.6으로 상승기조 주춤

  · 그러나 여전히 기준치(100)를 상회하고 있어 고용상황이 개선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기대

- 2011년 1/4분기 「순자산지수」는 101.8로 2010년 3/4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



[그림 7] 서울의 순자산, 고용전망, 물가전망지수

체감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약화로 소비지출이 주춤한 가운데 '교육/문화비'와 '주거비' 부문의 가계 부담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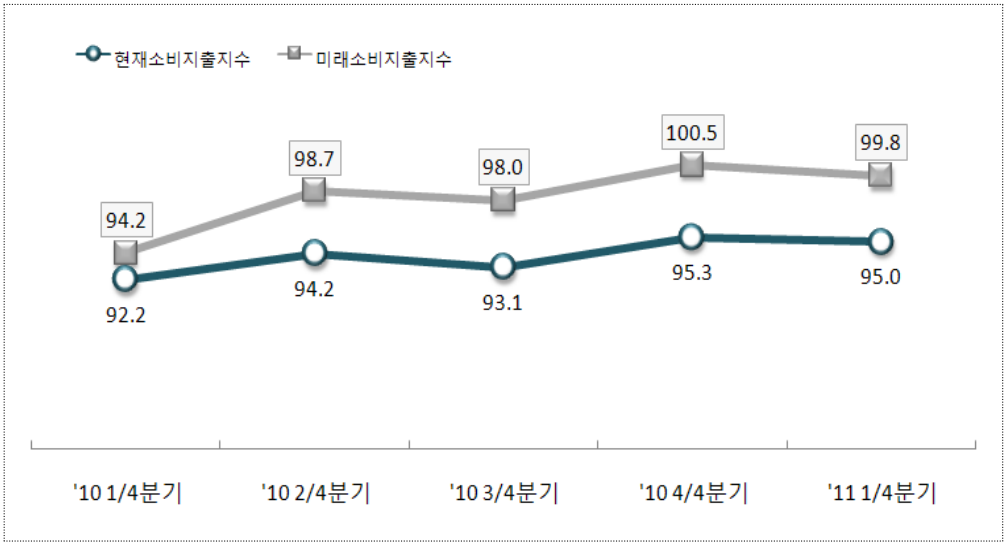
□ 서울의 「현재소비지출지수」, 「미래소비지출지수」는 각각 95.0, 99.8로 2010년 4/4분기에 비해 소폭 감소

- 2010년 4/4분기까지 개선되던 「현재소비지출지수」가 1/4분기에는 95.0으로 소폭 조정되어 현재의 소비지출에는 큰 변화가 없음을 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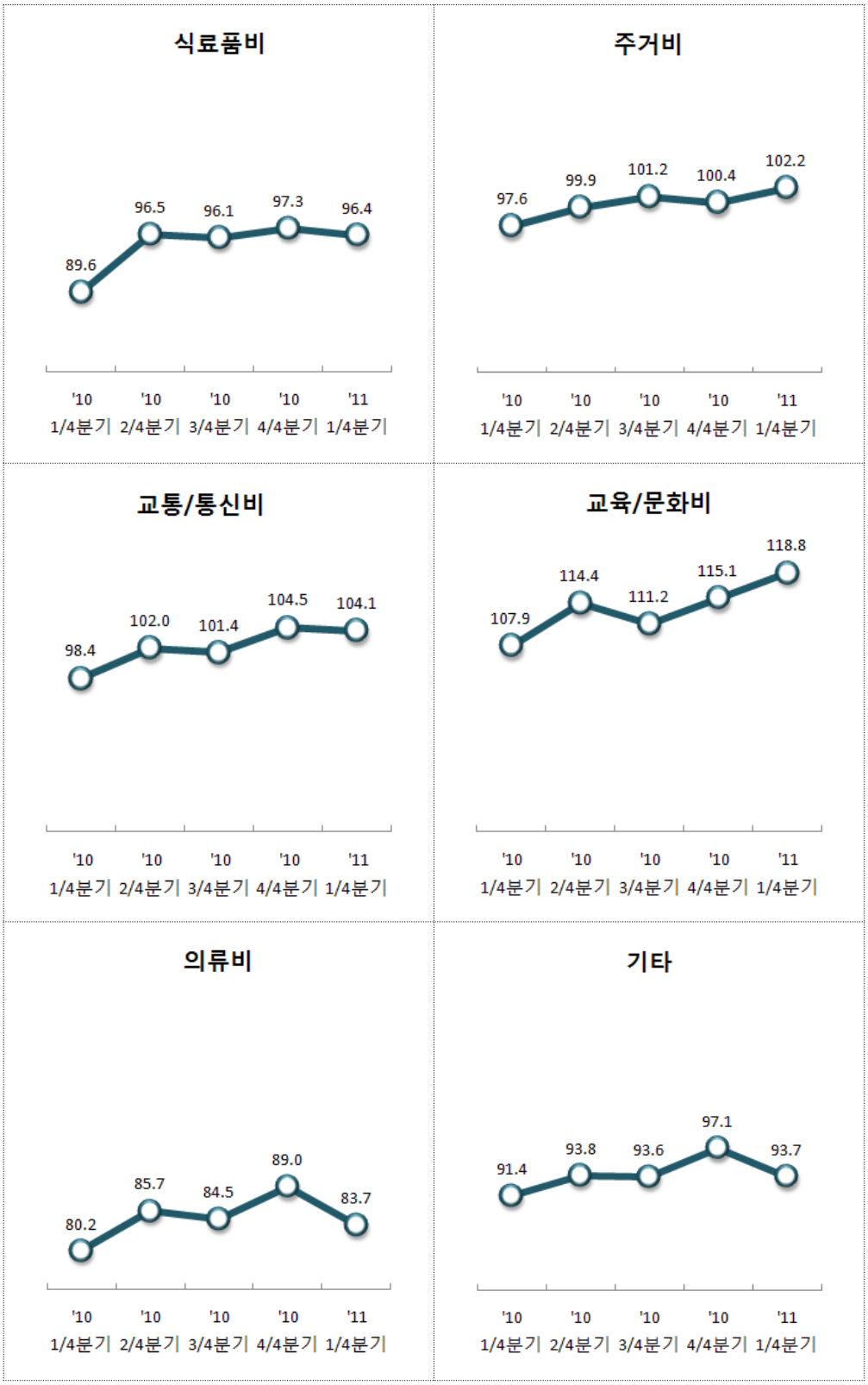
- 품목별 「미래소비지출지수」 조사 결과 '교육/문화비(118.8)', '주거비(102.2)'는 조사 시작(2008년 3/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지수를 기록

  · 특히, '교육/문화비'는 2010년 3/4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가계 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

  · 그 외 '교통/통신비'를 제외한 모든 품목의 소비가 기준치(100)에 못 미쳐 소비심리가 위축될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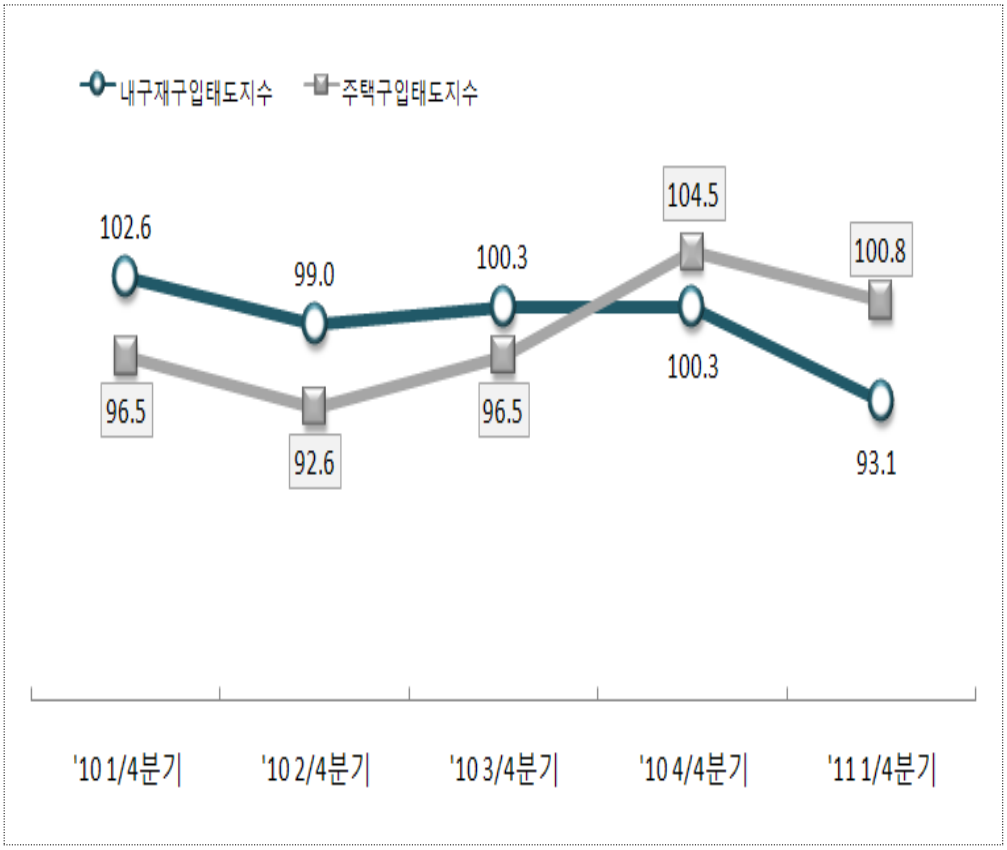
[그림 8] 서울의 소비지출지수



[그림 9] 품목별 서울의 소비지출지수

□ 2011년 1/4분기 서울의 「내구재구입태도지수」와 「주택구입태도지수」 모두 하락

- 2011년 1/4분기 「내구재구입태도지수」는 93.1로 지난 분기대비 7.2p 감소
  - 2010년 2/4분기의 99.0 이후 3분기 만에 기준치(100) 이하인 93.1로 하락
- 2011년 1/4분기 「주택구입태도지수」는 100.8로 1/4분기보다 3.7p 하락하였으나 기준치(100)를 상회
  - 주택시장의 급격한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나 미분양 감소 등의 영향으로 주택구입 심리가 2010년 2/4분기 이후 서서히 개선



[그림 10] 서울의 내구재 및 주택 구입태도지수

Ⅲ. 서울의 1/4분기 기업 체감경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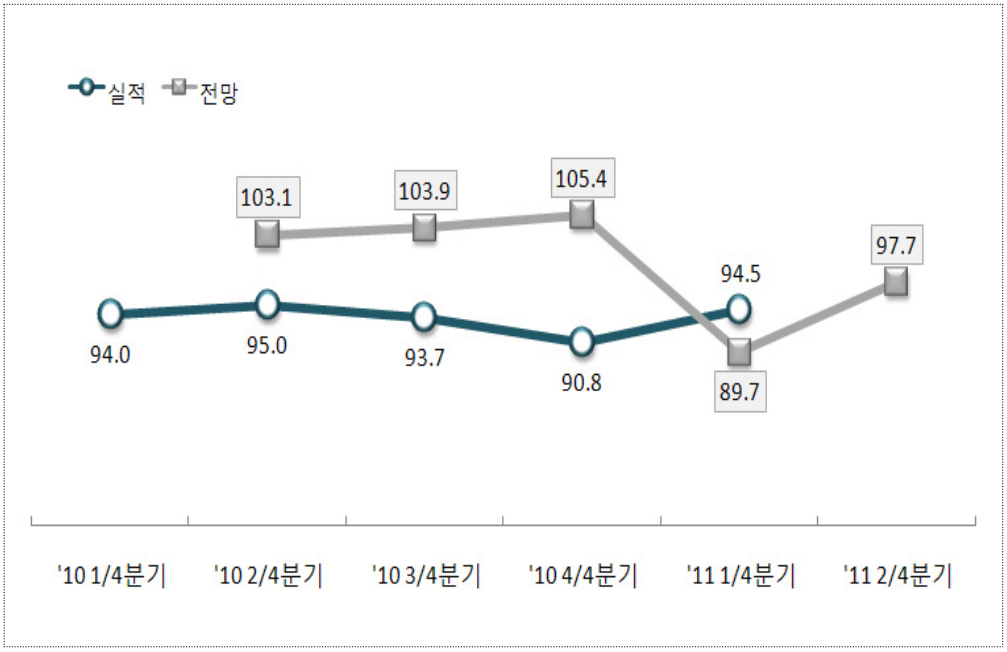
서울의 기업 체감경기 완만한 상승 기대

□ 2011년 1/4분기 서울의 기업 체감경기가 다소 진정되며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증가

- 서울의 「업황실적지수」는 2011년 1/4분기 94.5로 전분기보다 3.7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기업의 경영여건이 개선되고 있음을 시사

- 또한 1분기 이후의 기업경기를 나타내는 서울의「업황전망지수」는 97.7로 8.0p 상승하여 향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

  · 「업황실적지수」와「업황전망지수」 모두 전분기 대비 상승하여 소비자 체감경기와는 달리 기업 부문의 체감경기는 서서히 회복될 것으로 기대



[그림 11] 서울의 업황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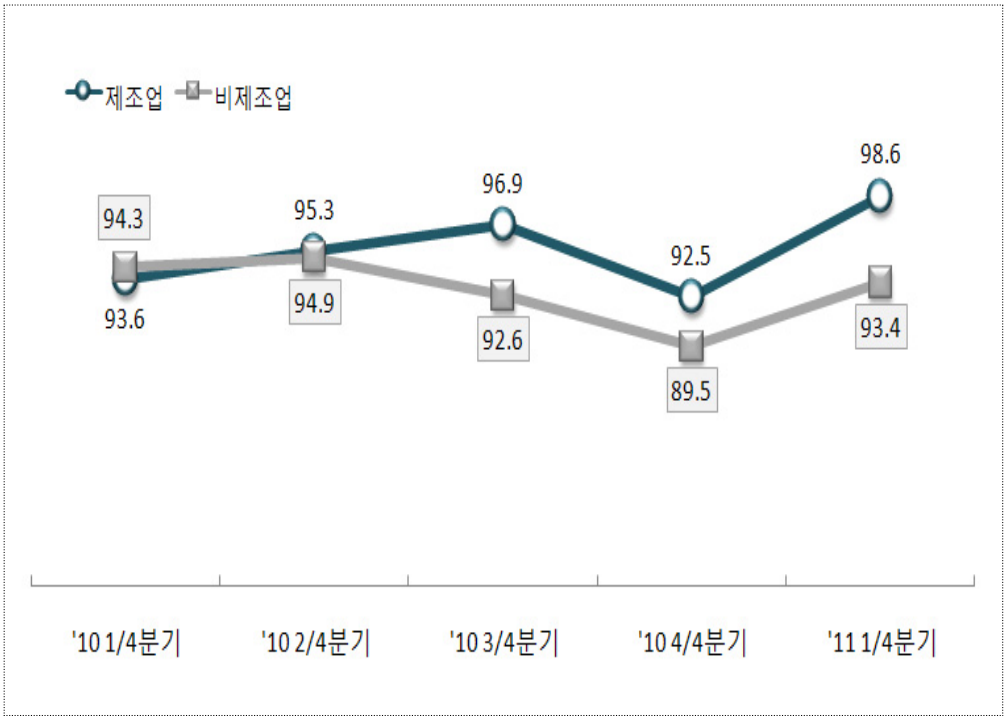
서울의 기업 체감경기 회복세는 비제조업보다 제조업에서 강세

□ 2011년 1/4분기 서울의 제조업 업황실적은 전분기와 비교하여 6.1p 상승한 98.6을 기록하였으며 비제조업은 전분기 대비 3.9p 상승한 93.4를 기록

- 2010년 4/4분기 하락했던 업황실적이 개선되었으며 특히 제조업이 비제조업보다 큰 폭으로 상승

  · 제조업의 업황실적 지수는 기준치(100)에 근접하며 조사를 시작한 2008년 1/4분기 이후 큰 폭으로 상승

  · 수출 및 내수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업황실적이 개선되었으나 최근의 물가 상승과 부동산 시장의 침체 등의 영향으로 비제조업의 업황실적지수는 제조업을 하회



[그림 12] 서울의 산업별 업황실적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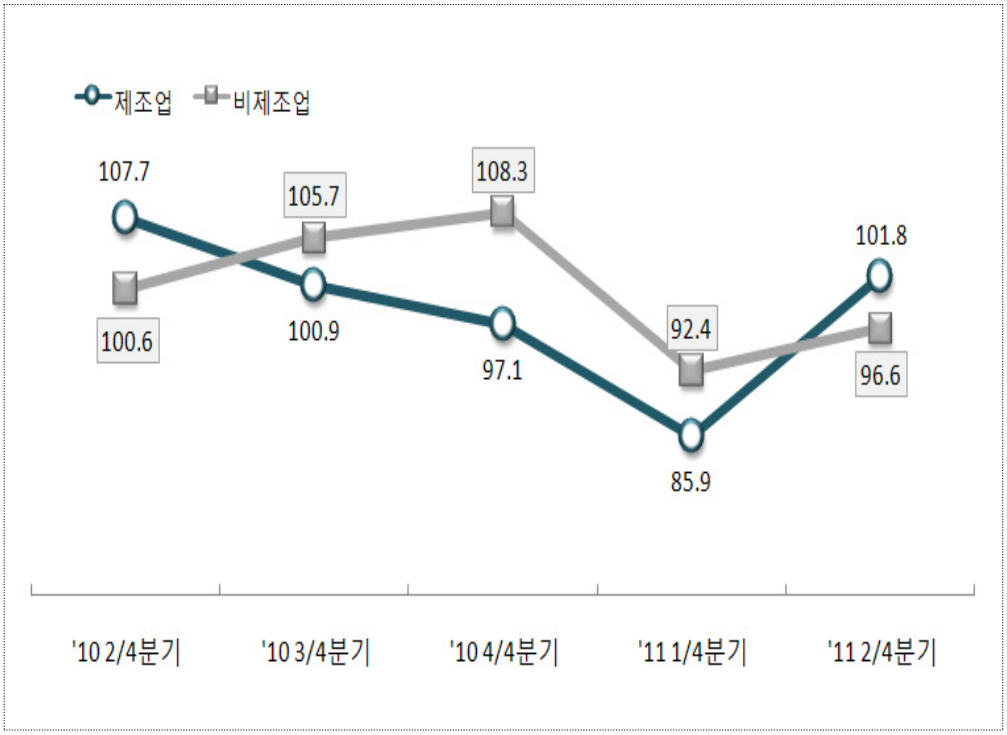
□ 서울의 제조업 업황전망은 전분기 대비 15.9p 상승한 101.8을 기록하였으며 비제조업 업황전망도 3.8p 상승한 96.6을 기록

- 2010년 2/4분기 이후 계속 하락하던 서울의 제조업 「업황전망지수」는 4분기 만에 상승세로 반등

  · 업황전망지수가 기준치(100)를 상회함에 따라 제조업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서울의 비제조업 업황전망은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기준치(100)를 하회하며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제조업에 비해 낮은 것으로 판단

  · 서울의 가시적인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은 비제조업의 체감경기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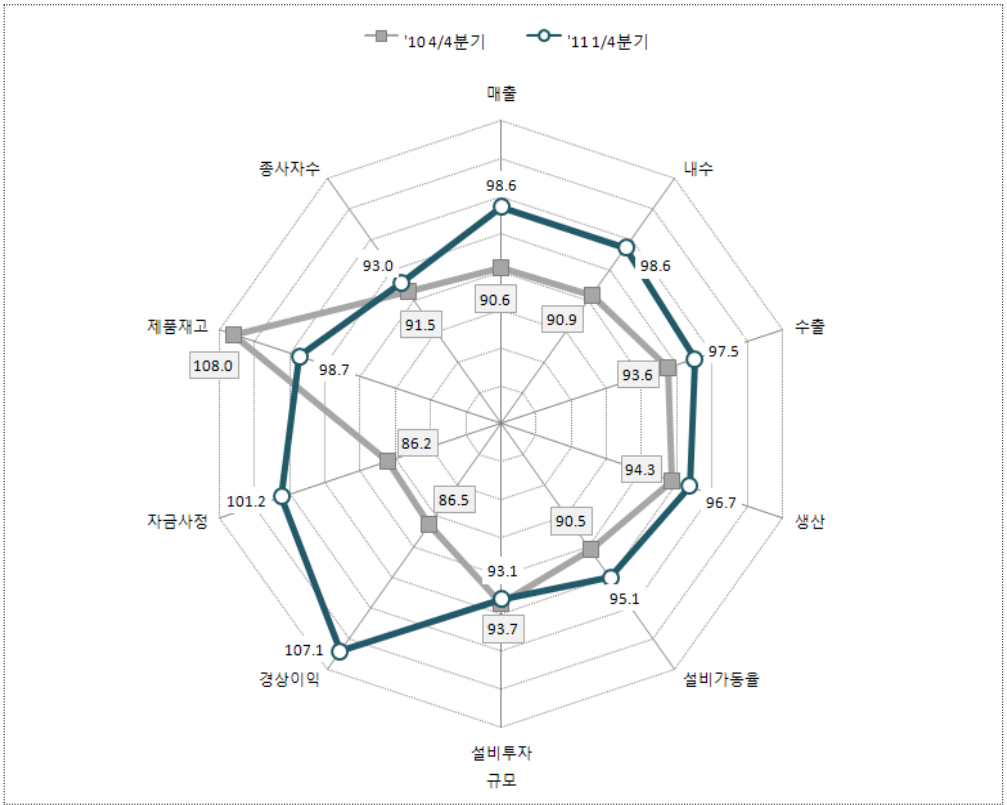
[그림 13] 서울의 산업별 업황전망지수

서울소재 기업의 전반적인 영업환경 호전

□ 2011년 1/4분기 서울소재 기업의 각 부문별 영업 실적은 개선

- 경상이익 부문의 실적지수는 2010년 4/4분기와 비교하여 20.6p 증가한 107.1을 기록하며 2008년 3/4분기 조사 이래 가장 큰 폭으로 개선

  · 그 외 매출(98.6), 내수(98.6), 수출(97.5) 순으로 증가폭이 개선되고 있고 기준치(100)에 근접하고 있어 기업의 영업실적이 개선되고 있음을 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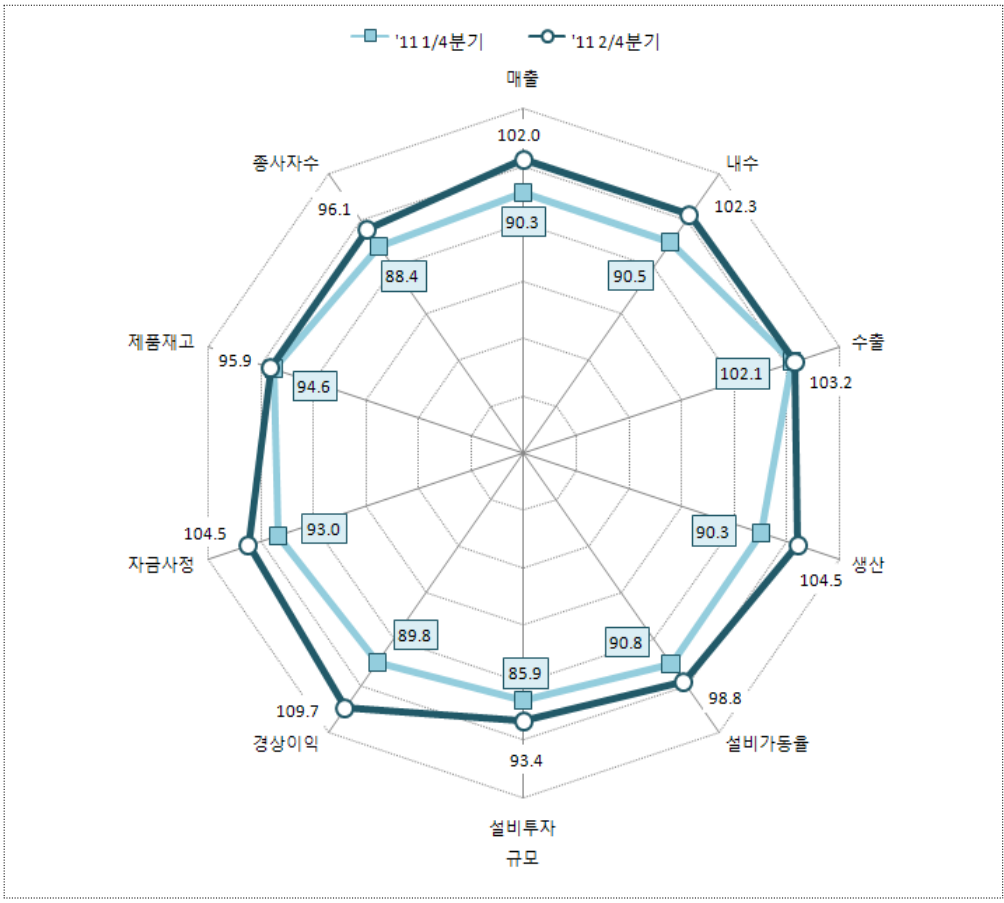
[그림 14] 서울의 각 부문별 실적 지수

- 자금사정 부문의 실적지수가 15.0p 증가한 101.2를 기록하는 등 기업의 경영여건 또한 크게 개선

- 자금사정의 실적지수는 조사 이후 처음으로 기준치(100)를 넘어서 기업 실적 안정화에 크게 기여
- 설비가동률(95.1)과 종사자수(93.0)는 소폭 상승하고 제품재고(98.7)는 크게 감소하여 실적 악화요인이 감소

□ 2011년 2/4분기 서울소재 기업의 각 부문별 전망지수 개선으로 향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상승

- 특히 경상이익(109.7), 생산(104.5), 자금사정(104.5), 수출(103.2), 내수(102.3), 매출(102.0) 등이 기준치(100)를 상회



[그림 15] 서울의 각 부문별 전망 지수

- 영업실적전망지수의 각 부문별 지수가 상승함에 따라 향후 서울소재 기업의 경영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전망
- 이와 함께 자금사정의 전망도 조사 이래 최고 수치 기록

- 종사자수 전망지수는 전분기 대비 7.7p 상승한 96.1을 나타내고 있으나 여전히 기준치(100)를 하회하고 있어 고용여건 개선은 다소 더디게 나타날 전망

Ⅳ. 종합분석 및 시사점

서울 경제는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성장폭은 다소 둔화

□ 서울의 생산, 소비, 고용 부문에서 대체로 경기회복세를 유지

- 2011년 1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가 전년동월대비 25.5%로 크게 상승하고 취업자수는 2.7% 증가하는 등 내수 위주로 경기회복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성장탄력은 다소 약화

  · 전반적으로 경기회복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소비의 증가폭에 비해 산업생산지수의 증가폭은 2개월 연속 축소되어 성장탄력 다소 약화

  · 취업자수 및 청년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여 서울의 고용여건은 점진적으로 개선

  · 구제역, 이상기온, 국제유가의 급등 등에 따라 물가상승 압력이 가중되고 있어 경기회복세가 약화되지 않도록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시책들을 보완하고 경기 관련 지표 추이를 지속적으로 예의 주시 필요

소비자 체감경기는 하락하였으나 기업의 체감경기는 전반적으로 개선되어 향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 상승

□ 서울 소재 기업의 경영여건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물가 상승 압력 확대로 완만한 경기회복세 전망

- 서울 시민의 전반적인 체감경기를 대표하는 「소비자태도지수」는 2011년 1/4분기 92.2로 지난 4분기 평균보다 하회

  · 「소비자태도지수」의 하락은 이상기온 및 구제역으로 인한 농축산물 가격 상승과 국제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경기 상승에 대한 기대감 감소

에 주로 기인

- 서울 소재 기업의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업황실적지수」는 2011년 1/4분기 94.5로 전분기보다 상승하여 기업의 경영여건이 개선되고 있음을 시사
  - 기업의 경영 실적과 전망 모두 개선되고 있어 하반기에도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되나 물가 상승 압력이 상존하여 성장률이 둔화될 전망
- 따라서 향후 성장률 둔화가 성장력 약화로 연결되지 않도록 정책적 측면에서 성장탄력을 유지할 수 있는 시책 발굴이 필요

생활물가 관리, 청년층 일자리 창출 등 정책적 지원으로 경기안정화 유지 필요

□ 내수 증가를 통한 서울경제의 지속적인 경기회복세 유지를 위해 물가상승 압력에 대한 대책 필요

- 최근 기상여건 악화에 따른 농축산물 가격상승, 중동정세 불안으로 인한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인상으로 향후 생활물가 상승폭이 클 것으로 판단
  - 서울시는 물가 안정을 위해 물가 및 유통정보의 신속한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서울특별시 물가정보망'에 꾸준한 관리·감독이 필요
  - 또한 농수산물의 물가상승 억제 및 도매거래 정착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구조 선진화'의 유통 구조 개선이 시급

□ 전국 대비 서울의 고용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안정적인 고용 환경 제공을 위한 지원책 필요

- 서울의 고용시장을 살펴보면 계층별, 연령별 고용여건 개선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

- 업종별로는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자영업의 고용이 부진한 상황이며, 연령별로는 청년취업자수 증가율의 등락이 크고 불완전한 증가세를 유지

- 따라서 서울시는 청년층 취업대책으로 시행하는 '청년창업 활성화 추진' 사업의 지속적인 운영과 '서울형 사회적기업 지원' 정책의 강화를 통하여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유지에 노력할 필요

□ 서울의 잠재성장력 강화를 위해서는 서울시 산업 중 비중이 큰 서비스업의 활력 회복과 중소규모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본 대책이 필요

- 서울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서비스업과 경제 펀더멘탈(fundamental)의 기초가 되는 중소규모 제조업의 육성이 중요

  - 서비스업의 경우 자영업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창조산업 육성 등 타 분야로의 업종 전환 및 유도 필요

  - 중소규모의 제조업의 경우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강화' 등과 같은 실질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

□ 최근 서울의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어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신성장 산업 및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시책사업의 일관성 있는 추진 필요

-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청년창업 프로젝트', '새로운 일자리 100만개 창출' 사업 등의 지속적인 추진 및 지원이 필요

- 서울이 가지는 비교우위 산업, 즉 인적자본 및 R&D에 기초한 환경·에너지·바이오 등 그린에코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유도

박희석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02-2149-1227
hspark@sdi.re.kr

부록 : 2011년 1/4분기 주요 조사 결과

<표 1> 서울지역 소비자 태도 지수

	소비자 태도	생활 형편		경기 판단		구입 태도	
		현재 생활형편	미래 생활형편	현재 경기판단	미래 경기판단	내구재 구입태도	주택 구입태도
2010년 1/4분기	100.0	87.7	108.8	84.3	116.6	102.6	96.5
2010년 2/4분기	99.2	88.7	112.3	83.1	113.2	99.0	92.6
2010년 3/4분기	98.5	90.6	110.6	81.5	109.7	100.3	96.5
2010년 4/4분기	101.0	92.5	111.2	85.3	115.6	100.3	104.5
2011년 1/4분기	92.2	90.8	108.7	66.9	101.5	93.1	100.8

<표 2> 서울지역 소비자 소비지출 지수

	소비지출		순자산	고용상황	물가예상
	현재 소비지출	미래 소비지출			
2010년 1/4분기	92.2	94.2	97.3	98.3	145.9
2010년 2/4분기	94.2	98.7	98.4	104.7	151.0
2010년 3/4분기	93.1	98.0	95.9	107.6	157.9
2010년 4/4분기	95.3	100.5	98.4	107.8	147.7
2011년 1/4분기	95.0	99.8	101.8	100.6	154.5

<표 3> 서울지역 기업 경기 지수

구 분	실적					전망				
	'10 1/4분기	'10 2/4분기	'10 3/4분기	'10 4/4분기	'11 1/4분기	'10 2/4분기	'10 3/4분기	'10 4/4분기	'11 1/4분기	'11 2/4분기
매출	99.4	106.2	96.8	90.6	98.6	103.0	110.3	106.5	90.3	102.0
내수	99.9	106.5	95.7	90.9	98.6	102.8	110.6	107.4	90.5	102.3
수출	100.8	93.8	105.4	93.6	97.5	107.9	96.8	101.3	102.1	103.2
생산	104.6	102.0	101.6	94.3	96.7	113.4	105.0	100.9	90.3	104.5
설비가동률	97.4	100.4	105.5	90.5	95.1	104.0	104.1	98.8	90.8	98.8
설비투자규모	93.3	99.0	102.8	93.7	93.1	98.1	105.2	98.7	85.9	93.4
경상이익	90.3	102.7	94.8	86.5	107.1	92.7	107.4	103.3	89.8	109.7
자금사정	90.9	96.4	94.6	86.2	101.2	98.5	99.6	103.9	93.0	104.5
제품재고	105.8	97.8	104.2	108.0	98.7	107.7	100.5	103.8	94.6	95.9
종사자수	95.1	92.4	89.4	91.5	93.0	93.7	94.4	91.4	88.4	96.1

본 조사는 2008년 3/4분기 이후 서울지역 표본 1,000가구와 500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 표본의 신뢰수준은 95%, 오차는 ±3.1%임(2011년 1/4분기 조사 시점은 2011년 2월초).